



10

정남진 장흥, 메디테인먼트로 길게 흥할 기세

장흥군 신활력지원사업 : NO 1. Meditainment City 장흥만들기

약 9만 명 방문, 직간접적 경제효과 700억 원! 올해 정남진 장흥에서 펼쳐진 물 축제 얘기다. 소비자선정 3년 연속 브랜드대상에 빛나는 정남진 물 축제는 '전국 우수 10축제'에 들어갈 만큼 인기있는 축제다. '물과 숲, 休'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뗏목타기 경연대회, 수상자전거 타기,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등 물과 함께 하는 행사 뿐 아니라 풍성한 문화이벤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들을 고루 체험해 볼 수 있는 옴니버스 축제였다. 그 중 물 축제장에서 열린 '우리가족 건강가원 약용작물 심기 체험'과 '약용작물 액침표본 전시', '한방요리경진대회' 등은 장흥의 또 다른 강점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바로 생약초, 한방, 치료와 체험을 아우르는 종합 의료관광 도시로서의 장흥이다. 장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기 신활력사업으로 'No 1. Meditainment City 장흥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내 생약초 한방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 아래 펼쳐진 이번 신활력사업으로 장흥은 새로운 의료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의료(Medical)와 오락(Entertainment)이 합쳐진 만능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시티를 만들어가는 장흥의 새로운 도전을 만나보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시작된 사업

장흥군은 2005년 1기 신활력사업으로 생약초 한방산업의 추진을 결정하였다. 약다산(藥多山)이라는 명칭이 남아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장흥이었지만 처음부터 성공을 점칠 수는 없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다.”는 담당자의 소회처럼 당시에는 한방산업으로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은 다소 힘들어 보였다. 이미 생약초한방산업을 왕성하게 육성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장흥군은 재배, 가공 등의 기초 기반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믿을 건 표고버섯뿐이었다. 장흥의 내로라하는 특산품으로 꼽히는 표고버섯! 2006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 장흥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표고버섯은 600여 농가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으며 전국 표고버섯 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까지 수출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은 대표적 웰빙 식품으로 표고버섯음료, 표고김 등으로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장흥군은 특산품인 이 표고버섯의

강점을 활용하여 ‘버섯도 약초다’라는 개념으로 한방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버섯농가의 반응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다. “버섯으로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장흥군은 더 큰 미래를 내다보았다. 지역 잠재자원인 청정 자연과 생약초한방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그렸다. 1기에는 우선 기반시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토질과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하여 재배단지를 확대하였으며 가공공장 설립과 단지조성으로 생약초의 생산과 함께 제조를 통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었다.



장흥 표고버섯

전국 최대 헛개 생산지로 발돋움

작물 재배단지 확대와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06년 장흥군은 ‘생약초 한방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헛개나무 사업이다. 현재 장흥지역 헛개나무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이 헛개나무 재배 주산지가 된 데는 젊은 귀농인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흥헛개나무영농법인 김대일 대표(33)는 2003년 귀농해 헛개나무 7만5000그루를 처음으로 심었다. 간 질환에 효능이 있는 헛개나무가 돈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김 대표의 동생인 대복 씨(30)를 비롯해 5명이 귀농해 헛개나무 심기에 동참했다. 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흥헛개나무영농법인은 농민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 농법을 선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잡초 제거였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예취기를 쏘아지고 풀

지역은
살아움직인다

전남 장흥군



김대일 대표



햇개나무 농장

을 베어 냈고 병해충은 유기제재를 사용해 방제하였다. 또 몇 해 전부터는 장흥의 명물인 키조개 껍데기를 부쇄 나무 주위에 뿌렸더니 병해충이 눈에 띄게 없어졌고 나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김대표의 이러한 열정으로 햇개나무 재배가 성공하자 마을 주민들도 동참해 야산이나 자투리땅에 햇개나무를 심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장흥햇개영농조합법인은 전국에서 가장 큰 햇개나무 농장이란 명성을 얻었고, 이 많은 면적을 친환경으로 재배해 전국 최초로 '햇개나무 유기농 1호'로 인증을 받았다. 처음에는 바이오벤처 기업인 (주)생명의 나무(대표 나천수)와 계약해 재배하고 납품했으며, 지금은 2009년 장흥에 설립된 (주)피엔케이 가공업체에서 햇개나무 관련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흥햇개영농조합법인, (주)피엔케이, 순천대학교,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등이 모여 장흥햇개산업육성사업단을 창립해 햇개나무를 활용한 산업화에 발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장흥 햇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를 공모·선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햇개나무 재배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유통, 체험 관광상품개발 등 6대 분야 9개 세부사업에 걸쳐 진행하였고 전국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5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4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장흥햇개영농조합법인에서 해 오던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사업단에서 추진하였다. 6월 30일부터 '햇개데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으며 농장을 방문한 주부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햇개꿀따기, 햇개잎따기, 햇개잎 장아찌 담그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최근 웰빙 열풍으로 햇개나무에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매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메디테인먼트 장흥’은 그야말로 흥행대박!

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성과로 주민들의 참여의지는 더욱 높아졌다. 장흥군의 특징을 하나 더 꼽자면 “하기로 한 일은 힘을 모아 제대로 해 내자!”는 적극성이다. 장흥군은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뿐 아니라 사업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관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였다. 생약산업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이다. 전담인력으로 차곡차곡 업무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어 2기에 들어서서는 순풍을 돛을 단 듯 진행이 순조로웠다. 이처럼 관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하드웨어 구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2기 신활력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장흥군은 처음부터 재배 및 가공산업 중심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료복합휴양도시, 즉 메디테인먼트 시티(Meditainment City)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초점을 둔 것은 메디테인먼트 산업화 체계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였다. 2009년 이뤄진 ‘한방산업진흥원’의 유치는 장흥군의 생약초 한방산업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었다. 전문기관이 들어서니 전문인력 양성에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교육과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한방음식전문가 70명, 한방도슨트 21명, 한방관광해설사 33명 등이 배출되었으며 생약초 혁신리더 교육 3회를 통해 각 39명의 혁신리더도 탄생하였다. 한방기업 육성 컨설팅으로 포장재, GMP인증, 웹사이트 개발 등 8개 기업에 컨설팅이 지원되었고 경영 컨설팅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전국 12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한방약

헛개나무 엑기스



초산업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 공동예산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배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한방산업을 추진하고자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힘을 합친 것이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추진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취임했다. 장흥군이 명실공히 한방약 초산업의 선두지역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연구 및 상품개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생약초 생활용품, 화장품, 쌈채소, 버섯 재배시스템 등이 연구 개발되었다. 관련 제품 기능성 인증 및 품질검사도 이루어진다. 축제와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물 축제 기간 동안 ‘초목수탁 생약대전’을 개최해 약용작물, 약선음식, 한방차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방음식 전문가들을 활용해 전국단위 약선음식, 약용작물 전시 경연대회도 개최했다. 30만명의 방문을 이끌어 낸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도 화제가 되었다. 어



한방산업진흥원



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폭넓은 층의 관람객들이 검진과 진료를 받고 건강에 대한 강연과 상담 등을 받았으며 의학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얻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통합의학박람회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방과 한방, 전통의학에 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가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천관산 일원에 통합의학치료센터, 로하스타운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학 드라마 '신의'의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드라마 '신의'는 천관산 일원에 세트장이 들어서고 있으며 '사상의학체험랜드'와 연계해 향후 체험 상품으로 이어질 것이다. 드라마 방영 시 장흥 생약초 효능 PPL과 출연배우 방문 팬사인회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누드산림욕'으로 화제를 모은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편백소금집을 조



편백숲 우드랜드



투자협약



선의세트장



편백숲 우드랜드



소금해독방



소금집 전경

성하였다. 장흥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발생율, 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더 나아가 장흥군은 아토피휴양복합단지 조성
과 체험 캠프로 아토피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드랜드 내에는
편백소금집과 음이온 발생 폭포, 온욕장, 목재문화 체험관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제 의료관광의 메카로 불려다오!

장흥은 이제 ‘메디테인먼트 시티’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의료
휴양건강도시로 거듭났다.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에서 시작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홍행’을 만들어낸 것이
다. 장흥은 생약초 한방산업을 특색있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차
별화된 발전 모형으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훌륭하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2개소였던 생약초 한방 관련 기업이 2010년 16개소로 확대되어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35ha에 불과했던 생약초가 2010년에는 450ha으로 확대되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벼 대체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헛개나무 사업은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량 판로를 확보하여 주민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신활력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기업매출은 6,219백만원, 참여농가당 소득은 18.4백만원, 기업유치는 3개소이며 신규일자리 또한 110개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목수탁 생약대전 등을 통한 각종 체험행사 진행과 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통한 마케팅의 결과로 지역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장흥군 다른 농수산물의 판매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전국한방약초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간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약초의 재배, 가공, 마케팅, 유통, 체험관광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화하여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한다. 그 뿐 아니라 물 축제 기간을 이용한 생약 마케팅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메디테인먼트 장흥의 위상을 드높였다. 앞으로도 미국, 중국 내의 우호협력도시를 통한 지역 홍보를 추진하여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메디테인먼트 장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름처럼 ‘길게 흥할’ 장흥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눈에 훤히 그려진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의료관광의 메카, 장흥이 있다.